

KB Commodity Brief

증산을 원하는 UAE와 UAE의 OPEC 탈퇴 가능성 보도

원자재 시장 전망

2023년 3월 6일

WSJ의 UAE OPEC 탈퇴 가능성 보도로 한때 국제유가가 3% 하락, UAE는 증산을 원하는 입장 3일, WSJ가 OPEC의 UAE가 사우디아와 경제적 이권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으며, UAE는 OPEC을 탈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3% 이상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직후 블룸버그에서 익명의 UAE 관계자가 동 소식을 부인했다고 보도되면서 국제유가는 보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UAE의 OPEC 탈퇴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는 일시적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OPEC 내 주요한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UAE가 지속적으로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OPEC+는 지난 연말 200만 배럴/일 감산을 발표했으나 실제 주요국가들의 생산량이 할당량에 대부분 못 미치고 있어 실제 효과는 80만 배럴/일 감산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 OPEC+의 추가적인 감산 조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음은 국제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2001~2002년, 2008~2009년 경기 침체 시기와 비교해보면 OPEC+의 감산량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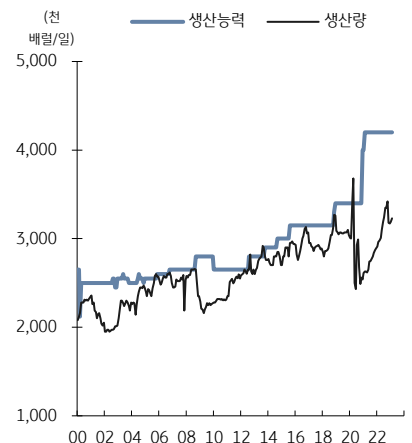


더 많은 리포트 보기

UAE OPEC 내 유일하게 생산쿼터에 맞춰 생산, 추가 생산능력도 100만 배럴/일 이상 보유
OPEC+ 내 주요국 중 사우디는 타이트한 생산량 체제를 원하는 반면, UAE와 러시아는 주로 증산을 원하는 측이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 등으로 자발적으로 감산 중이다. 반면, UAE는 OPEC 체제 하에서 쿼터에 맞추어 생산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산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국제유가는 UAE의 증산 가능성 보도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만큼 UAE의 증산에 대한 의지와 증산 여력 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OPEC 국가들은 생산 쿼터 대비 대부분 실제 생산량이 못 미치며 감산의무가 있는 10국의 생산량은 쿼터 대비 총 94만 배럴/일 하회한다. 반면, UAE와 쿠웨이트는 유일하게 생산쿼터에 맞추어 원유 및 석유를 생산 중이다. UAE는 코로나 전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생산캐파를 400만 배럴/일 이상으로 증가시켰으나, 현재 OPEC 내 UAE의 생산 할당량은 300만 배럴/일 수준에 머물러 있어 100만 배럴/일 가량의 초과 캐파가 존재한다. 여기에 UAE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 능력을 500만 배럴/일 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UAE가 OPEC 내 생산쿼터 할당을 확대시키거나, 자발적인 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국제유가 70~80달러대 횡보세 유지, 3월 이후 중국경제지표와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가 중요 연초 이후 국제유가는 큰 방향성이나 변동성 없이, 70~80달러대 횡보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3월에도 러시아의 50만 배럴/일 감산,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재개 (3개월 간 30만 배럴/일 속도)라는 주요 공급 이슈도 있으나, 여전히 국제유가는 공급 이슈보다는 경기/수요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는 3월에 발표될 중국의 리프닝 이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경제지표들의 발표,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국제유가의 저점은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과 통상적으로 일치하며 그 저점은 3월 전후, 늦으면 2분기 내가 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KB Commodity, 1/5](#)). 다만, 3월 이후 중국의 수요 회복이나 글로벌 원유 생산량 수준이 예상한 범위 내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국제유가의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WTI 평균 79달러 전망).

UAE의 원유 생산량과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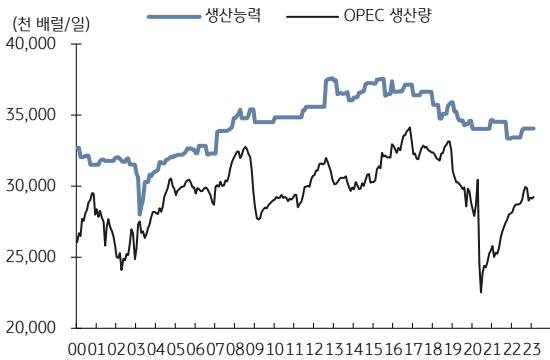
자료: OPEC, Bloomberg, KB증권

표 1. OPEC의 2023년 1월 생산량과 생산 쿼터

(천배럴/일)	생산량			증감	생산쿼터	쿼터 미달
	1월	12월				
사우디아라비아	10,319	10,475	-156	10,478	-159	
이라크	4,424	4,470	-46	4,431	-7	
UAE	3,045	3,042	3	3,019	26	
쿠웨이트	2,693	2,648	45	2,676	17	
이란	2,557	2,579	-22	0		
나이지리아	1,336	1,271	65	1,742	-406	
앙골라	1,155	1,108	47	1,455	-300	
리비아	1,148	1,159	-11	0		
알제리	1,015	1,015	0	1,007	8	
베네수엘라	686	666	20	0		
콩고	262	244	18	310	-48	
가봉	183	193	-10	177	6	
EQUATORIAL	53	55	-2	121	-68	
OPEC	28,876	28,926	-50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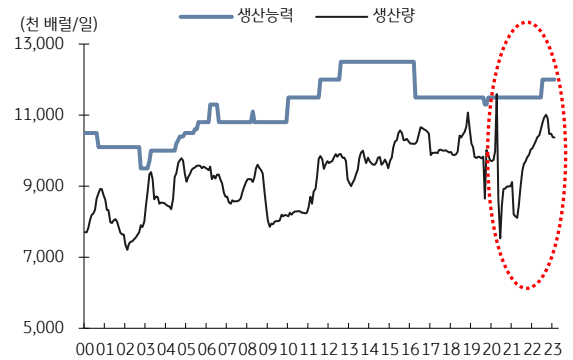
자료: OPEC, KB증권

그림 1. OPEC 생산량과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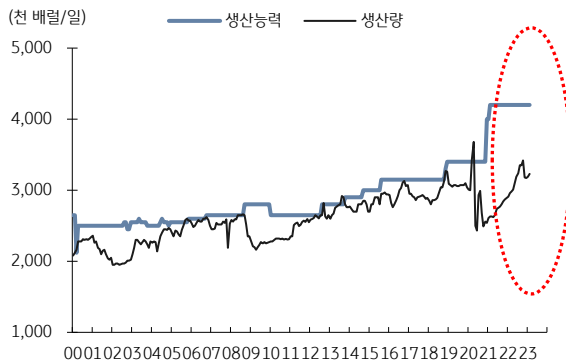
자료: OPEC, KB증권

그림 2. 사우디 생산량과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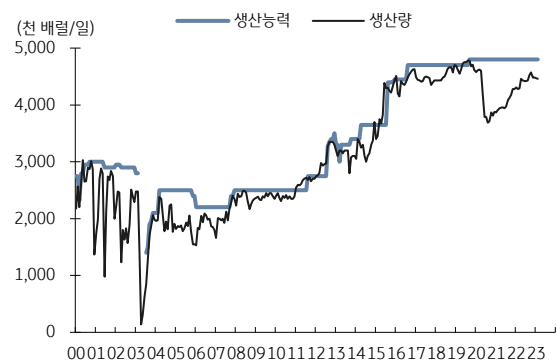
자료: OPEC, KB증권

그림 3. UAE 생산량과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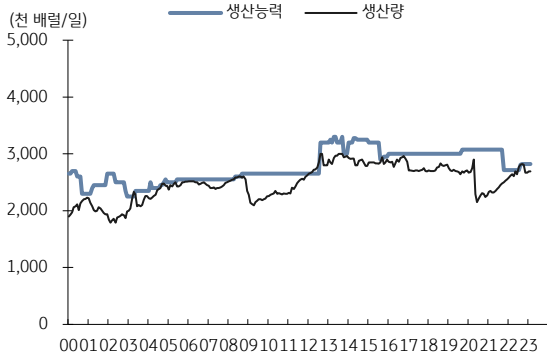
자료: OPEC, KB증권

그림 4. 이라크 생산량과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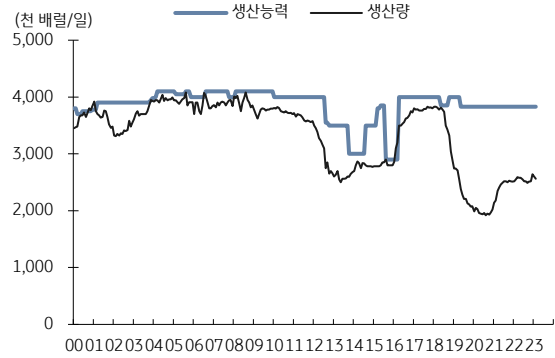
자료: OPEC, KB증권

그림 5. 쿠웨이트 생산량과 생산능력



자료: OPEC, KB증권

그림 6. 이란 생산량과 생산능력



자료: OPEC,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